▶▶ 매일 INDEX

5면

'안전한 교통으로 일상이 행복한 전주'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음 1월 22일) 제3685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역·대학 공동위기 극복 '한마음'

제2회 전북 RISE 위원회

2025년 시행계획 심의·의결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서
올 글로컬30 공모 대응 논의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제2회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라이즈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과 함께 지역 및 지역 대학의 공동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시행계획을 의결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18일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와 도지사-대학총장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전북 라이즈(RISE) 위원회는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날 2025년도 라이즈의 구체적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및 공모계획 등이 담긴 라이즈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북 라이즈센터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840억원 규모의 라이즈 공모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라이즈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부 중점사업이다.

도는 라이즈를 통해 지역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은 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라이즈 위원회 후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대학 총장 간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앞선 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라이즈 시행계획이 공유됐으며 2025년도 글로컬대학30 공모를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2023년 전북대, 2024년 원광대에 이어, 올해 또 하나의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도록 차별화된 혁신안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선정방향에 대응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재정투자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연합형 대학 모델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 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모색됐다.

간담회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학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2025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8일 전주역사박물관 강연장에서 전주시 효자4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가 열린 가운데, 우범기 시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고 적혀진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

우범기 시장, 효자4동서 시민들과 현장 소통 진행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일환… 지역 현안 청취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구 청사부지 활용 등

우범기 전주시장이 효자 4동 주민들을 직접 마주해 전주의 대변혁을 이끌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청취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전주시는 18일 전주역사박물관 강연장에서 효자4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기타 자생 단체 임원진들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효자4동 주민들과 마주한 우 시장은 올해 시정목표인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행사에서는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큰 꿈'이라는 피켓을 들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 시민과 시가 함께 노력해 전주의 큰 꿈을 이루자는 다짐의 퍼포먼스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기도 했다.

이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효자4동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효자4동 주민들은 △효자4동 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의 속도감 있는 건립 △우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구 효자4동 청사부지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각각의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고, 단기 및 장기 과제로 해결할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전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전주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과 함께 전주의 큰 꿈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자4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농촌마을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전주 인구의 약 6%를 차지하는 3만9,000여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 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익시설이 위치하는 정주여건이 우수한 곳이다. /김옥기 기자

첨단전략기업 환경·안전·보건 전반 집중 컨설팅

전북자치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키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및 화학물질 취급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첨단전략산업 투자 증가 및 기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기업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사)전북산학융합원과 협력하여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컨설팅 분야에서는 기업별 화학물질 관련 현황 및 문제점 파악 후 대응방안 제시, 시설개선 분야는 안전설비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인력양성 분야에서는 법정 의무교육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범 도입됐으며, 50개 기업 대상 기초진단·심화 컨설팅, 11개 기업 대상 환경·안전 시설개선, 50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컨설팅 및 지원 만족도 우수 100%, 차년도 사업 참여 희망률 100% 등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사업수행 기간이 짧고, 시설개선 보조금이 낮아 기업들이 아쉬움을 표했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 지원내용을 보완했다. 올해는 컨설팅 30개소, 시설개선 10개소, 전문인력 30명 양성을 목표로 더욱 심층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올해부터 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업 특성에 맞춰 '화학안전'과 '환경기술'로 이원화하고, 시설개선비 지원 단가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 수료 인증과 연계한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도내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종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2월 말부터 도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